황금박쥐 공원의 송엽국

함평군 대동면 향고리 '황금박쥐 공원'에 분홍색 물감을 뿌려 놓은 듯 송엽국이 만개했다. 석류풀과인 송엽국은 자주색, 붉은색, 흰색 등 다양한 색깔의 꽃을 피운다.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

"농어촌 여권 대리신청 허용해야"

발급창구 인구 5만이상 지자체로 한정 … 전남 5곳 불과

장흥 주민 등 원거리 방문 … 시간·경제적 낭비 불가피

여권법 개정으로 여권 발급이 가능한 일선 자치단체가 확대됐으나 대리신청이 금지돼 농어촌 지역 소규모 지자체 주민들이 오히려 불편을 겪게 됐다.

정부는 오는 29일부터 인구 5만명 이상에 연간 여권발급 민원이 5천건이 넘는 지자체에 한해 여권발급 창구를 개설토록 여권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전남지역에서는 도 본청을 비롯해 순천과 여수·광양시, 영암 등 4개 시·군에 여권발급 창구가 개설됐다.

그러나 개정된 여권법에 따라 대리신청이 금지돼 장흥 등 인구 5만명이 못 되는 소규모 농어촌 지자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여권발급 창구가 있는 시군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할 수 밖에 없게 됐다.

연간 1천500여건의 여권발급이 이뤄지고 있는 장흥지역의 경우 지금까지 읍·면사무소 직원들이 마을을 방문, 여권발급 업무를 대행해 왔으나 앞으로는 주민들에 의한 직접 신청만이 가능해져 시간적·경제적 낭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주민 김모(45)씨는 "농어촌 지역 주민들 대부분이 고령화돼 민원처리가 서툰데다 농번기 등 바쁜 농사철에 여권발급을 위해 원거리를 방문하는 불편을 겪게 됐다"며 "농어촌 지역 주민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여권법 개정"이라고 주장했다.

또 농어촌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과 지자체에서는 농어촌 주민편의 제공을 위해 발급 지자체를 늘리는 등 개선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유선호 국회의원은 "국회차원에서 여권발급과 관련한 농어촌 주민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여권법 추가 개정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농어촌 주민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15명 이상이 여권발급을 신청할 경우 본청 공무원이 직접 현지방문를 통해 여권을 발급할 계획이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화순 토마토 재배농민 명품 브랜드 공동생산 연합회 창립총회 개최

화순 토마토 재배농민들이 명품 공동브랜드를 만들기 위해 뭉쳤다.

화순군 토마토 재배농민들은 지난 20일 농업기술센터 농업과학교육관에서 '토마토 연합회' 창립총회를 가졌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전완준 화순군수, 이용정 화순 농업기술센터소장 등 유관기관 인사를 비롯해 토마토 재배농민 100여 명이 참석했다.

회장에 선출된 이길호씨는 "'화순 자연 속 愛'라는 브랜드가 지역을 대표하는 최고 명품 브랜드가 되도록 재배농가가 똘똘 뭉쳐 확실한 경쟁력을 갖춰나가겠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영광 조선·특화산단 조성 본격화

군, 칠곡조선소 15만㎡ 규모 확대키로

165만㎡ 특화산단 개발계획 용역 추진

영광군이 조선소와 특화산업단지 본격화를 계기로 공업도시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다.

영광군은 지난달부터 홍농읍 칠곡리에 착공한 칠곡조선소의 규모를 약 6만㎡에서 15만㎡로 늘리는 농공단지 지정 변경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지정 변경이 이뤄지면 바닷물을 빼낸 도크에서 배를 조립한 뒤 다시 물에 띄운 상태에서 작업을 할 수 있어 배 건조에 필요한 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은 이와 함께 2009년부터 본격화될 지방특화산업단지 165만㎡의 특화산업 및 부지 선정을 위해 개발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키로 하고 최근 산업단지 전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했다.

전남도내 6개 지방특화산단 가운데 하나인 영광 지방산단이 조성될 부지로는 현재 영광읍, 대마면, 묘량면 등 3곳이 유력하게 꼽힌다. 이 밖에 소규모 농공단지 개발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4천500여명의 인구유입 효과가 예상되는 칠곡조선소가 내년 완공되고 지방특화산단 조성이 시작하면 어업과 농업 위주이던 지역 경제가 활기를 띨 것"이라고 말했다. /영광=조익상기자 ischo@

나주시의회, 민주당 전유물인가

정 칠 현
〈사회 2부 나주주재〉

나주시의회가 오는 25일로 예정된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놓고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무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부의장과 3석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민주당 측과 타협점 찾기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무소속 의원들과의 대화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 상당 기간 시 의회가 파행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나주시의회는 민주당 8명, 무소속 6명으로 구성돼 있다. 불과 2명이 많은 민주당이 무소속을 철저히 배제한 채 각종 자리를 독식해 왔다.

기초의회 감투를 둘러싼 정파간 다툼의 뿌리는 정당공천제에서 부터 비롯됐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때문에 기초의원들의 정당공천은 폐지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에 공감하는 지역주민들이 적지 않다. 오죽했으면 충북의 한 의회가 의원들의 공천폐지를 주장하고 나섰을까.

정당에 속한 의원들은 차기 공천을 의식하기 마련이다. 정당집행부 감시와 견제 기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후보자없이 의장을 뽑는 이른바 교황선출 방식도 문제다. 의회의 대표라면 마땅히 후보 등록과 함께 공약이나 소신을 밝혀 검증을 받고 선출되어야 옳다.

집행부는 각종 송사에 시달리고 의회는 때만 되면 감투 싸움을 벌이는 나주지역의 볼썽사나운 모양새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 기초의회 의장단은 시민들의 대표 심부름꾼이다.

의장단 선거는 정파의 세를 과시하는 자리가 아니다. 지역주민들은 나주시의회 하반기 의장단 선거가 또다시 특정 정당의 집안 잔치로 전락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 chjung@kwangju.co.kr

"郡 민원행정 만족한다"

주민 500명 친절도 등 설문

해남지역 주민 10명 중 9명이 군 민원행정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남군이 지난 5월 10일부터 30일까지 민원을 접수한 500명을 대상으로 친절도와 처리과정, 불편 사항 등 12개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91.8%의 민원인이 만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82.4%)에 비해 9.4%가 높아진 수치로, 공무원 친절도에 대해서는 82.4%가, 민원접수와 처리과정에 대해서는 80.6%가 매우 만족한 것으로 답했다.

해남군은 그동안 지속적인 직원교육을 통해 친절 마인드 향상에 노력해왔다.

군은 이번 친절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불편사항은 즉시 시정하고, 민원처리 기간단축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민원 만족도를 더욱 높여나갈 방침이다.

김충식 해남군수는 "꾸준한 시책개발과 직원교육, 우수 자치단체 벤치마킹 등을 통해 민원인이 지적한 요구사항을 적극 개선해 민원행정 만족도를 100%로 만들어 내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해남=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친구야 아침먹자" 곡성군보건의료원이 최근 곡성읍 중앙초등학교 정문에서 '친구야 아침먹자'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보건의료원 직원과 학부모, 교사 등은 초등학생 800여명에게 주먹밥을 나눠주며 아침식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켰다. 또 칼로리 환산 방법, 고른 영양섭취 등의 내용을 담은 홍보 판촉물을 배부하고 건강에 좋은 운동과 음식에 대한 영양가를 표시한 패널 전시회도 가졌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장흥 회진 덕산입구~대리 3㎞ 구간 2차로로 확포장

장흥군 회진면 덕산입구에서 노력도 연륙교를 거쳐 대리입구까지 3㎞ 구간의 지방도 819호선이 2차로로 확·포장된다.

장흥군은 5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2010년 7월 완공 목표로 지방도 819호선 확·포장 사업에 착수한다.

지방도 819호선인 회진 덕산~대리 구간은 도로폭이 협소하고 굴곡구간이 많아 차량통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해왔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